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953 • 교회설립43주년 • 1996

오늘 교회설립주일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예배

저녁 찬양예배는 호산나찬양대의 기념 음악예배로

충현교회는 오늘(9월 1일)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는다. 우리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1953년 9월 첫주일(6일)이었다. 첫 회집 인원은 장년 8명, 학생 10명 모두 18명. 장소는 중구 인현동 한명덕 권사(고인, 당시 집사)댁이었다. 그후 9월 21일 충무로 5가 36번지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나갔다.

우리교회는 초창기부터 김창인 목사의 순교자적이고 청교도적인 신앙관과 힘있는 메시지, 건실한 당회, 좋은 교인 등의 요인이 하나가 되어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며 6·25 전쟁 이후 혼란했던 우리나라 사회와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주며 성장해 나갔다. 특히 교계에서는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고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 충현교회의 의미가 크게 자리 매김을 되며 자라왔다.

특히 교회학교 운영, 농어촌 전도에 대한 열정, 개척자적인 선교 사역과 복한 선교, 교회내적으로는 설립 10주년에 '천국일꾼을 키우자'라는 우리교회의 비전 제시, 교사 양성을 위한 상설 지도자양성부 개설, 20주년을 맞으며 전 교인의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개설 운영한 성경연구원, 25주년을 맞으며 시작한 강남구 역삼동의 새 교회당 건축의 시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은 음으로 양으로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되었다.

교회 설립초 기하급수적인 교세의 증가로 1958년 9월 30일 충무로 교회당을 완공하고 헌당예배를 드리고 1961년 9월 28일에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교육관을 본당과 잇대어서 완공하게 되었다.

그후부터 우리는 "좁다, 좁다"하며 지내면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1968년에 조직, 1970년에 현재 교회터인 역삼동에, 당시에는 허허벌판

이었던 이곳에 대지 9,000평을 매입, 새로운 교회당 건축의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그후 10여년이 흐른 뒤에야 실제적인 건축에 들어갈 수 있었다.

1978년 5월 25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들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비롯한 온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의 결과로 하나하나 쌓아온 교회당이였다.

1984년 4월 22일(주일), 드디어 역삼동으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생각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교육관과 선교관은 완공됐으나 본당은 골조만 세워졌을 뿐 아직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우리는 지금의 갈릴리홀에 주일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다.

그후 1987년 7월 12일 온 교우들의 감사 넘치는 감격과 환희 속에 본당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그해 12월 28일 충현교회 설립자인



▲ 왼쪽은 충무로 시절의 교회당, 오른쪽은 지금의 교회당의 모습.

김창인 목사가 성역 50주년을 마감하며 정년으로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후임에 이종운 목사가 1988년 4월 당회장으로 부임했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사임, 1991년 10월에 당회장으로 와서 사역하던 신성중 목사가 이 또한 개인적인 문제로 사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충현교회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에 대한 큰 시련이며 또한 더 높은 발전을 위한 큰 인고

(忍苦)의 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밀하게 충현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21세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해 나가는 교회로 자라날 것이다.

금요집회, 구역예배 시작

이번주 9월 6일부터

그 동안 하절기를 맞아 쉬었던 금요집회와 구역예배가 금주 금요일(9월 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동안 교회내 각종 여름 행사와 계절학교 등에서 성도들이 교사로, 학생으로 봉사하며 지냈는데, 가을을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금요집회 및 구역예배에 다시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이 풍성해야 할 것이다.

육군 제2훈련소 합동세례식

9월 7일 김창인 목사 집례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에서는 오는 9월 7일(토) 육군 제2훈련소에서 세례식을 거행한다.

이날 세례를 받게 될 장병들은 5,500명으로 김창인 원로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목사들이 집례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교회 장로들과 호산나찬양대도 함께 참석한다. 군전도회에서는 이 세례식과 군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바라고 있다.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으며 수요일부 찬양 담당인 호산나찬양대(여성찬양대)가 이를 기념하며 음악예배를 드린다.

호산나찬양대는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찬양대로 우리교회의 오랜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1966년 4월 첫째주(3일), 1부예배의 찬양을 담당함으로써 시작한 여성찬양대는 그 당시 교회 찬양대로서는 무척 이색적인 것이었다. 주로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찬양대로 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열심 있는 찬양대로 기억되어 왔다.

교회설립 43주년

호산나찬양대 기념 음악예배

W. Hohn의 MISSA PRIMA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며 호산나찬양대는 대운 여름 동안 내내 준비한 곡을 연주, 찬양하며 교회 설립의 기쁨과 감사의 온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베풀고 있다.

연주곡목은 W. Hohn의 MISSA PRIMA(op. 1)이다. 지휘에 송숙자 집사, 반주에 채은실 집사, 곡중 애중창에 김혜숙, 구혜령 선생이다.

일시: 9월 1일(오늘) 오후 5시

장소: 충현교회 본당

교회설립43주년 기도원 부흥사경회

9월 2일(월) 밤부터

충현기도원에서는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으며 기념 부흥사경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통원은 ① 충현교회당에서 기도원으로 출발(오전 9시~10시, 오후 6시~7시) ② 성남 모란시장 마울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오전 10시~10분, 오후 7시~10분) ③ 본당 이매촌한신아파트 전차라고

회 앞에서 출발(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20분) ④ 기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광주터미널에 오셔서 택시편, 이천 근처 암행 원형버스 타시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기도원 관관 있음) 도보로 약 10분 ⑤ 기도원에서 교회로 오는 차편(오전 6시, 오후 10시 30분)

• 강사: 김 오 용 목사
(동일교회 담임목사)

• 일시: 9월 2일(월) 밤~
6일(금) 새벽까지

• 장소: 충현기도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산 9-1
☎ 0347-66-5425, 65-5472



충헌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뇌성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시편 29:1-11)

본 시편의 저자의 환경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충신 다윗 장군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억울하게도 반역자로 몰리어 도망다닐 때에 하루는 번갯불이 번쩍하는 뇌성벽력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오고 칠월 장마가 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지방에서는 여름에는 비가 잘 안 오고 겨울이 되면 비가 오는데, 뇌성벽력을 칠 때는 한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굉장한 큰 소리를 듣습니다. 그 뇌성벽력 속에서 다윗 장군이 지은 시가 이 시편입니다.

1.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있는 자”란 하늘에서는 천군천사가 권능이 있는 영물들이고 땅 위에서는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같은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권세가 당당한 사람들에게 다윗 장군은 ‘너희들이 오늘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복은 바람이 날라다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나서 받은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교만을 버려라. 그리고 약한 백성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권세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겸손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권세를 어찌 하실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의 선물을 가지고 너희 욕심을 채우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안팎이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붉은 옷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은 성도의 의로운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심갑주를 입은 예수님을 옷입은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옷, 외식의 옷은 벗어버리고, 회개한 자의 겸손한 옷을 입고, 마음과 입으로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2. 뇌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1) 백향목을 꺾으신 여호와의 소리
물 위에 있다는 말은 뇌성이 공중 물 위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비를 싣고가는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뇌성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뇌성소리가 힘이 있음이며 그 소리가 위엄차도다” 뇌성벽력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또 그 번갯불

이 얼마나 빠른지 상상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뇌성소리가 “우르릉 팡” 하게 되면 백향목을 꺾습니다.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가 중동에서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자체가 단단하며 키가 높고 보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뇌성벽력 “우지근 딱” 하니까 백향목이 산산히 부서져 버립니다. 성경에 나무, 지팡이, 몽둥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권세의 대명사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꺾어졌다는 말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튼튼한 왕의 권세가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뇌성처럼 나타나시면 레바논 백향목도 별게 아닙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2) 화염을 가르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뇌성 소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끝을 모르겠습니다. “우르릉 팡” 번쩍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번개 소리가 한 번 나타나니까 광야가 진동합니다. 지축이 흔들립니다.

(3) 삼림을 벗기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뇌성이 한 번 발하니 산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뇌성 소리,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한 힘의 소유자인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도망가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르릉 팡” 하고 벼락치신 분이 자기 편인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손해볼 리가 없습니다. 자기 편인 그분의 뇌성 소리에서 약속의 음성, 위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뇌성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3. 여호와의 음성과 하나님의 백성

(1)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의 왕의 보좌는 흔들자가 없습니다. 전쟁도, 홍수도, 심판도 하나님의 보좌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편입니다. 세상에 왕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임금님은 하나님인데, 그 임금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임금님이 홍수를 만나도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겁을 내겠습니까.

(2) 힘의 공급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들을 경계하시기 위해 뇌성벽력을 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화와 평강을 주십니다.

뇌성벽력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더니 어떤 과학자가 “뇌성벽력은 음

하늘의 뇌성벽력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깨닫고 돌아서라는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고 번개를 번쩍하시고 심판하시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 꿈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전과 양전이 부딪쳐서 난 빛이고 소리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라고 하는건 좀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만일 그 벼락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나무가 죄를 범했습니까, 산이 죄를 범했습니까? 왜 산과 나무에게 벼락을 칠니까?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나무가 벼락을 맞으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뇌성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무식한 말입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사람아! 학생들이 옆의 녀석하고 수군수군하고, 소설책을 보고, 딴 짓을 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이 불붙어 죄없는 책상을 때리지 않는가. 책상이 죄를 범했나? 책상을 때리는데도 말을 안들으면 할 수 없어서 ‘야! 아무개야’ 찾아서 야단을 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때려도 말을 안들으면 그때는 퇴학을 시킨다네.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면 너 살겠니? 벌써 죽었지.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는데 사람을 안때리시고 산과 나무를 때리시는 것은 선생님이 책상치는 것으로만 알아요. 정신차려! 정신 못차리면 마지막 심판에 몽둥이를 맞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의 뇌성벽력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깨닫고 돌아서라는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고 번개를 번쩍하시고 심판하시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 꿈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끌리앗을 이긴 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이긴 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먼저 승리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 속의 욕심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나부터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유혹을 이기고 협박을 이기고 모든

주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3) 평강의 출처이십니다

다윗은 뇌성벽력 소리를 듣고 폭풍우에 몸이 젖어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돈 가지고는 평안은 못 삽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장수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느라고 평안이 없습니다. 권세가 많은 사람도 평안이 없습니다. “땅” 할까봐서 대문 밖 출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진짜 평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품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품에 있어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일이 안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 장군이 이렇게 도망갔다가 얼마 안되어서 임금님으로 오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폭풍우를 만나도 그 마음에 상처를 안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뇌성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뇌성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오고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위로를 받고 용기가 생기니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풍랑 일어나는 세상에서 팔각팔각 죄를 마시고 허덕거리고 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얼굴에 웃음의 꽃을 피우면서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고 교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청년2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구원, 칭의, 성화 개념 정립의 기회

이 부 일
(집사, 청년2부 교사)

제 8회 청년2부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는 엄필성 장로님의 개회 선언에 이어 찬송가 265장이 갈릴리호에 울려 퍼졌다. 수련회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성화'이기 때문인지 참석자의 찬양 소리가 유난히 힘차고 어딘지 모르게 엄숙하기까지 하였다.

부감 임기채 집사님의 기도, 찬양대의 찬양과 장로님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구호 외침을 따라 참가자들 모두가 힘찬 목소리로 제창함으로써 '성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듯했다. 곧바로 이정석 목사님의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을 말할 때 흔히 '마음의 평안, 또는 죄 사함, 아니면 예수를 믿고 사죄함을 받으므로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다. 사실 이것은 평상시 구원이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경종으로 들렸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유사한 구원들은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기독교의 구원과 그와 연관된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강의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서로 분리시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칭의 없는 성화가 있을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다. '칭의를 얻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화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삶은...?'

강의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 칭의, 성화 등 기독교에 관한 개념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성화의 개념만 해도 도교의 정화, 유교의 윤리, 불교의 해탈 등 인간들이 만든 재래 종교들의 유사 개념들과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이러한 잘못된 개념들은 결국 수직적 성화론, 운명적 성화론, 그리고 신비적 성화론 등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기독교 용어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에 세심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이러한 왜곡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날은 재래 종교에서 영향받은 그릇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본 전날의 강의에 이어 성경에 가르쳐주는 '성화'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가 진행되었다.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성화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만이 거룩하며,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거룩해지며, 3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왜 성전의 금이 거룩해진 것인지(마 23:17), 또 시내산은 왜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거룩하게 하신 후 세상에 보내셨으며, 성자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상태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다.

강의 중간 중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기억이 나 슬며시 미소를 짓게 만든다. 그렇지만 그 미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웃음이 아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삶이 어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지나온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씁스러워하는 반성의 의미를 지닌 그런 미소인 것이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셨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상한 것은 어디선가 자꾸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것이었다. 아마도 참석자 모두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기도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나님, 이 강의를 보다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만큼 이 강의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었으리라.

셋째 날의 강의만 듣고서도 크게 기뻐하시던 집사님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던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들으면 좋을텐데 하고 안타까워하시던 권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참으로 이번 수련회는 장로님 이하 모든 교사님들, 그리고 면례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아직도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며, 배움을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던 수련회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한 몸이다.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 함께 모이자.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여!!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배우기를 더욱 힘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리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호르는 말도 애당초하지 않고 이 수련회를 위하여 애쓰신 교사님들, 면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보이게 않는 손길들이 이번 수련회를 더욱 향기로운 재물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뜻과 정성이 담긴 이 수련회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들의 목소리와 더불어 기쁘게 받아 주셨음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 육군 교도소를 방문하고

“주의 복음 전해 주세요”

김 신 자
(집사, 제9-1교구, 교정전도회)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윤삼중 목사님(교정전도회 지도)을 모시고 1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육군 교도소를 방문해 보니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망대교회에 들어서니 그곳에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준비해 간 음식과 과일을 한 곳에 보관해 놓고 군 목사님의 인도하에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50여명이 모여 함께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먼저 큰 은혜를 받았습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군목사님의 사회와 우리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을 부른 후에 윤삼중 목사님의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50-6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마음 속에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있는 자들의 모임, 군입대 후에 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죄수의 몸으로 젊음의 인생을 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나에게 내막이들이 이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견뎌온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은 잘못된 군 관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바르게 잡겠다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막내아들이 군 교도소에 죄수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 교도소를 여러번 방문하면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죄수의 몸으로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굳센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 감옥에 있는 그들은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

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자기들을 도와 달라는 음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평범한 군생활을 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교도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제라도 교도소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의 뇌에 깊숙이 새겨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자라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주님을 편히 믿고 있을 때 지금도 한 곳에서는 최악의 몸부림 속에서 절규하며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군 교도소에 우리의 생명과 구원되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단종교인 여호와증인이나 타종교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더욱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와 선교에 힘써야 하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중헌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주 방문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군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군 교도소 사역을 위해 교회가 더욱 힘써야 하겠다는 각오를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증거하는 일, 선한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때 그때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내 마음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

찬양대의 <중헌찬양모음 I>

남성중창단 CD 제작 보급

우리교회 찬양대와 남성중창단이 연주, 녹음한 찬양 카세트 테이프(사진 좌측)와 CD(사진 우측)가 나와 현재 보급 중이다. 찬양 카세트 테이프에는 각 찬양대가 불러 녹음한 찬송가 18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중헌찬양모음 I>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CD는 그동안 남성중창단이 준비하여 녹음한 찬가곡 13곡이 들어 있다.

현재 교회의 테이프보급소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중헌찬양모음 I>은 1개에 1,000원 CD는 1개에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게 좋은 찬양테이프나 음반에 별로 없는 실정에서 이번엔 나온 테이프와 CD는 예

리모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늘 들어 익숙해지고 친근한 목소리가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특히 <중헌찬양모음 I>은 장(喪)을 당한 집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찬양곡이 많이 들어 있어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막소식

- ▶ 유치부에서는 오는 9월 25일 반별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 ▶ 초등4부에서는 지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쓰기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었으며, 정성을 드려 성경을 써나감으로써 귀한 나눔성경을 두권씩 만들 수 있었다.

- ▶ 고등부에서는 매주일 12시 15분부터 아멘홀에서 소그룹연합기도회를 갖는다. 학생회, 성가대, 소그룹 회원 및 고등부 회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 장년1부에서는 오는 9월 22일에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전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 ▶ 장년2부에서는 9월 중에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5일에 예선을, 22일에 본선을 갖는다. 범위는 로마서 12장 1-21절이다.
- ▶ 새가정부에서는 오는 9월 22일을 충동원주일로 정하고 이날 성경퀴즈대회와 사진 콘테스트를 열 예정이다.

- ▶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9월 15일(주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각 처별로 실시한다. 지정곡은 102, 210, 453장이며 자유곡도 찬송가 중에서 선정하여 함께 불러야 한다.
- ▶ 찬양위원회는 금년 연말에 있을 메시아 연합 찬양을 위하여 오는 9월 8일(주일)부터 매주 찬양예배 후에 갈릴리홀에서 찬양 연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모든 찬양대원들의 적극적인 연습 참여를 바라고 있다.
- ▶ <계간 충헌> 가을호(통권 166호)가 나왔다. 가정예배, 구역예배 탐방 등이 실려 있다.

충헌전도대 모임

전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충헌전도대 모임을 갖는다. 그 동안의 전도 훈련과 전도대 운영을 돌아보고 보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전도대 운영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전도대 대원들은 꼭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직원모집

- 1. 모집부문**
 - 가. 영상(남녀 불문, 유경험자 25세 전후) ○ 명
 - 나. 음향(남, 유경험자 30세 미만) ○ 명
 - 다. 경리 및 사무직(여성고졸업 22세 미만) ○ 명
 - 라. 식당(여, 50세 전후) ○ 명
- 2. 자격**
 - 세례교인으로 신앙이 돈독한 성도
- 3. 제출서류**
 - 가. 이력서(사진포함) 1통
 - 나. 주민등록등본 1통
 - 다.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통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 4. 서류제출 및 문의**
 - 충헌교회 사무국
 - (☎ 552-8200 교 402)

선교연구원 개강

9월 7일(토) 고급반 강좌

선교연구원에서는 연구원 고급반을 오는 9월 7일(토) 오후 5시 베다니홀에서 개강한다.
고급반은 3개월 과정으로 선교 특강 및 간증 보고, 선교 정보 및 단체 소개, 기도회 등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젊은이 선교 헌신자 모임

단기 사역에서 장기 사역까지 선교 헌신자 또는 관심자들의 모임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선교관 지하 2층 메추라기홀에서 모인다. 인도는 선교위원회 지도인 장봉생 목사(대학부 겸임)이다.

구분	시간	내용
선교 특강 및 간증 보고	1시간	선교학 강의 선교 현장 사역 보고
선교 정보 및 단체 소개	30분	현대 선교의 흐름에 관한 정보 소개 교단 선교 현장 및 단체 소개
기도회	30분	선교 비전 나눔, 선교사와 사역을 위한 기도

요한전도회연합회 제7회 체육대회

요한전도회(30대 남성도로 구성된 전도회)는 제7회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매년 1회씩 모인 요한전도회연합회 체육대회가 이제는 7회째로 접어들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주최 : 요한전도회연합회
-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2시
- 장소 : 충헌교회 본당 앞, 뒤뜰
- 대상 : 만 39세 이하의 남성도 및 가족(마리아전도회, 청년2부 협조)
- 종목 : 족구, 피구 등

제1회 충헌오케스트라 수련회를 마치고

과천시민의 광장의 선교음악회에 입추의 여지 없이 모인 청중에게 찬송가 연주



이수철
(집사, 할렐루야오케스트라 악장, 아멘찬양대 지휘자)

1996년 8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과천시 소재의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라'를 주제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충헌교회에서는 처음 가지게 되는 제1회 충헌오케스트라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다.

필자가 1996년도 첫주부터 할렐루야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봉사하면서, 타 찬양대에 비하여 영성훈련과 협조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던 중에 타 찬양대와 같은 수련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몇달 전 찬양위원회 지도 박경환 목사님에게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고, 찬양위원회 위원장 손동운 장로님외에 찬양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하에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날씨는 점점 다가오

는데 나로서는 성사여부를 놓고 무척 어려운 일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서 장소, 숙식, 동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개최 일주일을 앞두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겼다. 과천시의 유저들이 충헌교회 오케스트라수련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요일 밤에 선교음악회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대장예신 이종석 장로님은 개최, 이를 전 토요일 준비위원회 모임 때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않는가. 그 당시 당황한 것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믿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수요일 밤에 과천시민의 광장에서 있었던 선교음악회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와 주었다. 이종석 장로님의 제련된 인사말씀으로 시작

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는 주로 찬송가를 편곡한 곡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등을 연주하고 앵콜요청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를 다시 연주한 '예수 따라가며'를 청중들과 함께 부름으로 선교음악회를 마쳤다. 지면을 빌려서 협연해주신 할렐루야찬양대의 독창자 박나연 자매님, 아멘찬양대의 독창자 김성록 자매님, 좋은 소리가 나도록 마이크를 직접 설치해주신 김신 집사님, 수련회에 참석 못했지만 음악회에서 같이 연주한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개회예배, 종강예배, 아침, 저녁 경전회를 맡아 주신 박경환 목사님, 이종석 장로님, 차신득 장로님, 특히 뒤에서 묵은 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해주신 아멘찬양대 대원들에게 전심으로 감사드린다.

첫번째 하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홍보, 진행, 교과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충헌교회 오케스트라

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들은 만사 제처놓고 수련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수련회에서 강의하는 강사는 교회내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특강은 이귀자 교수님이 해 주시고 모든 강사님들이 희생적으로 가르치고 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이번 수련회는 처음 개최하는 것이어서 다른 부서의 수련회와 중복되기도 했는데, 다음 수련회는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되겠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4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리라 믿는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준비하는 과정, 선교음악회, 종강예배를 드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제1회 충헌오케스트라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